



#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CDP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2015년 1월 ~ 6월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 보여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선 언제나 부끄럽고 그 분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 뭐라 함부로 얘기 할 수 없고,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몽골에서 사역을 해 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 볼 때, 이들을 대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다른 이를 바라보는 저의 태도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상반기는 외부로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과 태국에서의 기아봉사단 모임 그리고 직원들과 러시아의 바이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동역자라는 말이 전에는 머리로만, 그리고 내 의지와 마음의 다짐으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저절로 내 마음과 눈이 '내가 이들과 동역하고 있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이칼 여행에서 그냥 별 구속 없이 쉬었다가 왔는데,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감이 더 두터워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 ● 상담실을 활용한 아동들과 교제

지난해 어느 정도 상담실 규모를 갖추었는데,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그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틀, 아니면 최소 하루는 상담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놀이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고, 만나고 싶은 시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각종행사



진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각종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청하게



이야기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스키체험



스케이팅과 눈설매로 추운 겨울 건강하게~~



생일파티를 좀 더 기념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유년부 영화관람



저학년들을 위한 소풍



두 센터를 합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부모들과의 친목 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를 합니다.



어린이날 축하행사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CDP-Day



어린이날 선물도 듬뿍~

● CDP -Day

올 해는 CDP-Day를 각 센터 별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CDP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각 센터의 자원봉사자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보다 나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준비과정에서 아이들간에 사귄다와 친밀감이 더 좋아지고 자원봉사자와 아동들 간에 교제의 시간이 많아진 것이 훨씬 큰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행사를 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이 진지하게 틀리지 않으려 연습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귀여웠습니다. ^^



● 지원프로그램 (비타민, 밀가루, 식료품, 석탄, 의료)

저희는 아동이나 그 가정에 물품을 나눠주는 것은 자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의 발전을 돕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도움이 아니라 학습이나, 체험, 견학, 학습능력향상, 믿음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과 가정은 물품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가정을 면밀히 조사해서 꼭 필요한 가정만 골라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도 우리가 알아서 일률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보다는 가정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부모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저희 직원이 계산대 앞에서 지불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석탄지원



생필품지원



수술을 마치고



후원자의 딸과 함께



롯데월드에서 ~~

지난해 배변장애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던 "들경 오양가" 라는 아동은 이번에 스스

로 배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모두(가족, 친척, CDP 직원들) 아주 기뻐했습니다. 또한 3살 때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된 애룡체척이라는 아동이 이번에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영 볼 수 없을 것이라 체념했었고 다만 그 눈이 아파서 그 아픈 원인만 치료받으려 했는데, 애룡자야를 후원하시는 분이 치료할 수 있도록 후원하셔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서인지 눈에 인공렌즈를 넣어서 눈이 열려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0.2 정도의 시력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 와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3살 때부터 키워왔던 외숙모나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 가족이야기 : 영훈이는 이제 형을 따라 러시아에서 공부할 것을 미리 준비라도 하듯이 혼자서 생활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며칠 외출을 할 때면 음식이며, 반찬을 해 놓고 가는데 녀석은 그것을 차려서 먹는 것조차 안하니 좀 걱정이 되지만 어찌겠습니까? 본인이 적응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요. ^^ 영찬이는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 군대와도 같았던 유학생생활에서 벗어나 부모가 있는 몽골로 오게 되어 좋은가 봅니다. 초청장 때문에 2개월을 늦게 간 것이 꽤나 힘든 결과를 만들어낼 줄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을 겁니다.

저희는 두 가지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아내인 천선희 선교사가 정식으로 노동비자를 받아 코디네이터로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일이 많아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보다 제가 저녁밥상을 차리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 "당신이 일하고 난 주부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 그래도 다른 일은 전부 아내가 합니다. 전 전업주부, 못합니다. ^^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없는 빈둥지에서 우리 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에 익숙하다보니 아이들이 없는 생활이 낯설고, 불편하기(노동력 때문에 ^^)까지 합니다.

### "보다 나은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몽골에서 김준태, 천선희(영찬, 영훈) 선교사 올림.

연락처 : 몽골 976-9944-8115 , 976-9947-8115  
070-4642-8117  
peter66@hanmail.net

